

# 시민 눈높이 맞춰 확~ 달라진 경찰

매 주 '미제사건 분석회의'  
농촌 공·폐가 집중 수색  
비리·무능 이미지 벗기  
시민 질타 면피용 아니길

'말뚫은 공조수사', '단속 기간에는  
요란하다가 흐지부지되는 용두사미  
식 수사' 등 경찰의 고질적인 취약점이  
바뀔 수 있을지.

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이  
시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치안  
행정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.

비리 경찰, 무능한 경찰의 이미지를  
깨트리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 
있어 관심이 쏠린다.

광주지방청은 지난 8월 23일부터  
매주 한 차례 5개 경찰서 과학수사담  
당 수사관을 모아 놓고 '미제사건 분  
석회의'를 개최하고 있다.

5개 경찰서 관할 구역에서 발생  
했지만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을 한  
데 모아놓고 동일 수법 여부나 사건  
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분석, 공유하  
는 자리다. 각 경찰서에서 범인을  
검거하지 않은 주택·빌라(원룸)·  
상가·아파트·병원·숙박업소·차량  
털이·편질방 등 12개 침입 절도 사  
건이 대상이다. 각 경찰서 분석담당  
요원이 매주 관할 사건을 찾아 가져  
오면 공통 수법 여부와 피해자들의  
유사성을 분석, 사건 해결을 위한  
정보를 찾아내는 식이다. 서부경찰  
이 최근 검거한 40대 차량 절도 피  
의자도 여기에서 나온 정보가 한몫  
을 했다.

담당 경찰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관  
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본  
인이 잡아야 한다는 '자존심'이 강해

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쉽지 않았  
던 게 현실이다. 광주에서 강간 미수  
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된 30대 용  
의자가 경기도에서 또다시 성폭행을  
저지르고 달아난 사건도 경찰의 미흡  
한 정보 공유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  
적도 적지 않았다.

이 제도 시행에는 정순도 광주지방  
경찰청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.  
정 청장은 1년 6개월간 60차례에 걸  
쳐 광주 전 지역 주택가를 돌며 여성  
속옷을 훔친 이모(40)씨 검거 사실을  
북부경찰청에 보고 받은 뒤, 5개 경  
찰서가 정보를 공유했다면 범인이  
광주 전 지역을 활개치며 범행을 저  
질렀겠냐며 화를 냈다. 내심 '수고했  
다'는 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던  
북부경찰청은 애초 계획했던 검거 자  
료도 내지 못했다. '미제사건 분석회  
의'는 정 청장의 발인 이후 시작됐다  
는 점에서 경찰의 고질적 취약성을  
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 
있다.

전남지방청이 추진중인 '농촌 공·  
폐가 집중 수색'도 비슷하다. 전남청  
은 1만 곳에 육박하는 공·폐가를 형  
사·생활안전·기동팀을 동원해 지속  
적으로 집중 수색하고 관리하겠다는  
계획을 검토중이다.

공·폐가 집중 수색은 일제 검문 검  
색 기간이나 기소중지(지명수배)자  
검거 기간, 중요 강력 사건을 저지르  
고 도주한 범인을 색출할 때 집중적  
으로 이뤄졌던 방식. 도주중인 범인  
이 공·폐가에 은닉하는 경우가 많은  
에도, 매년 일제 단속 기간에만 집중  
할 뿐 지속적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 
'일회성'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 
이번에는 달라졌으면 하는 기대감이  
나오고 있다.

/김지용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

광주천 돌다리 건너기

9일 광주시 북구 임동 광주천 중류 두물머리에서 열린 '광주천사랑 시민하마랑'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이 디딤돌 다리를 건너고 있다. 이날 행사는 광주시와 푸른광주21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. /니명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## '시민 개방' 소극적인 대학 도서관

시민단체, 광주지역 시민 이용 현황 분석

광주지역 대학들이 시민에 대한  
도서관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  
이 제기됐다.

9일 '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 
시민모임'이 내놓은 '광주지역 대  
학도서관 시민이용에 관한 현황'에  
따르면 지역내 17개 대학 중 일반  
인의 열람실 이용이 가능한 대학은  
광주교대·동강대·동신대·서영대·  
전남대·호남대 등 6곳으로 절반에

도 못 미쳤다.  
스티디실이 있는 12개 대학 중에  
는 광주교대·동신대·전남대 등 3개  
대학만이 개방했으며, 자료실의 경  
우 광주교대·광주대·광주여대·동  
강대·동신대·송원대·전남대·조선  
대 등이 도서열람 및 대출이 가능했  
다.

도서관 개관 시간·관수·이용시간  
은 학생이나 교직원 등 학교 구성

17개 대학 중 개방 6곳 뿐

도서관 대출 제약 많아

일부는 예치금까지 요구

원보다 훨씬 제약이 많아 제한적으  
로 이뤄졌다. 또 일부 대학은 도서  
관 이용을 위한 예치금을 요구해  
시민의 도서관 접근을 어렵게 했  
다.

이 단체는 "지역사회 중심에 있  
으면서 가장 개방적으로 활동해야  
할 대학들이 학교 도서관을 매우 폐  
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"고 지적했  
다.

이들은 "대학 도서관을 학교 내  
부 구성원들만 이용하는 것은 사회  
와 함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  
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한 행태"  
라며 전면적인 도서관 개방을 요구  
했다.

/채희종기자 chae@kwangju.co.kr

## 갈수록 느린 119 구급차

도착시간 5년 전보다 광주 31초·전남 62초 늦어

소방관 업무부담 가중 때문

광주·전남지역 119 구급차 평균 도  
착시간이 갈수록 느려지고 있다.

김현 민주당 의원이 9일 소방방재  
청에서 제출받은 '2008년~올해 전국  
소방본부별 119 구급차 도착 평균시  
간'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 
현재 광주소방안전본부 119 구급차  
평균 도착시간은 5분14초로 5년 전인  
2008년 4분43초에 비해 31초 늘어났  
다.

전남소방본부는 지난 8월 현재

7분42초로 2008년 6분40초보다 62초  
증가했다.

119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이 느려  
진 이유는 소방대원 3교대 근무제가  
확대됐지만 인력 증원이 충분하게 이  
뤄지지 않으면서 소방관 1명당 업무  
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김  
의원 설명이다.

반면, 서울·대구·대전·울산소방본  
부 119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은 5년  
전보다 각각 21초·27초·14초·40초  
단축됐다.

/이종행기자 glee@kwangju.co.kr

소방차 진입 못해 화재 무방비 노출 지역

## 소화함 설치 겨우 10% 뿐

광주 18%·전남 11%

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화재에  
무방비로 노출된 지역이지만 비상  
소화함은 10% 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  
났다.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8일 소  
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'전국 소  
방차 진입불가 구간 비상 소화함 설  
치 현황 자료'에 따르면 광주 17개 주  
거·상가 지역의 소방차가 진입이 불  
가능하지만 3곳(17.6%)에서만 비상  
소화함이 설치됐다.

동구 소대동, 서구 매월동 주거지

역과 서구 광천동 상가 지역만 비상  
소화함이 설치됐고 나머지 남구 방림  
동과 서구 양동 주거지역 등에는 비  
상 소화함을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 
조사됐다.

전남에서도 37개 소방차 진입 불가  
구간 중 목포 만호·유달·동명동 고지  
대 지역과 광양 주거지역 등 4곳(10.  
8%)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비상  
소화함이 갖춰져 있지 않아 화재가  
발생했을 경우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  
되는 상황이다.

/김지용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## 어린이집 13% 감독 사각지대



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언주 의원  
(민주당)은 조사결과, 작년 한 해 동  
안 전국 5632곳의 어린이집이 단 한  
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  
타났다고 9일 밝혔다.

이 의원은 "이는 전체 어린이집 4  
만2527곳의 13.24%가 감독 당국의  
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"이라  
고 주장했다.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 
지자체가 어린이집을 지도, 점검하도  
록 하고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.  
또 복지부가 어린이집에 대해 3년마  
다 평가인증을 하지만 이 역시 의무  
가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다. /연향뉴

만취 40대 "왜 술 안취?" 여주인 폭행  
상대팔  
○~만취해 술주  
정을 부리다가 술  
을 더이상 팔지 않  
겠다는 술집 여주인을 폭행한 40대  
남성이 경찰서행.

○9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정  
씨(45)씨는 지난 8일 밤 11시50분경  
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S유희주점에서  
술에 취해 술집 주인 김모(여·47)  
씨의 뺨을 때렸다는 것.

○정씨는 경찰에서 "술을 더 마시  
고 싶어 추가 주문을 했는데 종업원  
이 내 말을 무시하고 술을 가져오지  
않아 순간 화가 났다"며 선처를 호소  
/최승철기자 srchoi@kwangju.co.kr

## 8월 '20대 男 사망 사건'

서부경찰, 추락사 결론

광주서부경찰은 지난 8월 발생한  
'20대 남성 사망 사건'과 관련, 추락사  
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9일 밝혔다.

경찰은 지난 8월 21일 광주시 서구  
화정동 A 주차빌딩 앞에서 숨진 채  
발견된 이모(25)씨 사건과 관련, 현  
장 조사 및 신고자, 유족 진술 등의 조

사를 거쳐 이같이 결론냈다.

경찰은 현장과 반경 400여m에는  
CCTV가 없었지만 신고자·유족 진술  
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후 관련 서  
류를 검찰에 송치했다.

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이씨가 현  
장을 찾게 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 
인근 일용직 근로자 대기소에서 이씨  
가 일했는지 여부도 조사했지만 일한  
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.

/박정희기자 halo@kwangju.co.kr

###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

**발목펌프는 혈액순환장애로 인한 고혈압, 당뇨,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들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.**

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.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.

★특허등록 제30-0630153 발목펌프★

- ▶ 편백 경침 겸용 [음성카운터](아파트용) 60,000원
- ▶ 편백 경침 겸용 [음성카운터](주백용) 50,000원
- ▶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(아파트용) 40,000원
- ▶ 편백 경침 겸용 발목펌프(주백용) 30,000원

**제일건강** 문의전화: 010-7510-2000  
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-1

## 현장직 사원모집

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 
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 
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.

- 급여 : 1,800,000원
- 상여금 300%분할지급 (3개월 후부터)
-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, 상여금 400%
- 근무시간 08:30~17:30 + 3시간 연장, 토요일 특근
- 여자사원은 35세 이하(경력자 40세미만 까지)
-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
- 제출서류 : 이력서(사진부착)
- 주민등록등본 각1부
- 근무 지 : 하남 7번도로, (주)금로전기

▶ 초보자가능, 즉시근무, 장기근무가능, 적업환경좋음.

**주식회사 엠 지**  
TEL. 062-681-5588 HP. 010-2580-3744  
FAX. 062-681-5586

\*버스운행 : 두암동 → 문흥동 → 오치 → 일곡 → 양산동 → 철단지구 → 신장지구 → 신가 → 운남지구 → 월곡동

**특허방수**  
특허 제10-1097784호  
특허 제10-0562035호  
특허 제10-0548189호

**대한건축시험회**  
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
**트라이슈머**  
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

**하자없이 20년은 너뿐이 가는**

**트라이슈머® 단열복합시트방수**

태양열차단, 냉기차단  
여름철 실내온도 3~5°C, 겨울철 실내온도 3~5°C  
전기료 30~40%, 난방비 15~20%

**냉·난방문제! 방수와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.**

본사 전속모델  
탈런트 이영 후

**IPALG (주)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** www.ipalg.co.kr 또는 **이파엘지.kr**

**광주전남 대리점** (062) 511-0444  
**010-6603-0405**

목포대리점 (061) 284-0485  
여수대리점 (061) 683-0485  
순천대리점 (061) 726-0482  
광양대리점 (061) 795-0485